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스님 첫 정견 발표

4월 4일 태고총림 선암사서 발표회 개최
4월 11일 2차 발표…4월 18일 선거 진행

순천=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태고종을 이끌 적임자임을 종책 공약을 통해 종도들에게 알렸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는 4월 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적묵당에서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1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상진 스님, 기호 2번 성오 스님의 종책 공약 발표와 후보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진 스님 "해외 불교대학과 학점 공유"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하나된 종도와 함께 한국불교태고종의 중흥을 이루겠다' 는 캐치프라이즈를 제시했다. 상진 스님은 "그동안 우리 종단은 내 · 외적인 성장통도 많았지만 호명 스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구도에 들어섰다"면서 "이제야말로 종도들이 종지종풍을 높이면서 한국불교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종단의 미래가 체계화된 종도 교육과 문화 포교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의 미래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그 지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태고종의 100년 대계를 위해 선암사를 비롯해 동방불교대학의 각 지방 분교를 활성화하고, 해외 유수의 불교대학과의 학점을 공유화해, 한국불교를 혁신화하는 교육제도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하기 위해 불교 무형문화재 발굴과 국가지원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 태고종과 연계된 지방무형문화재도 육성해 나갈 것" 이라며 "한국불교에서 최대의 불교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종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상진 스님은 "이제 종단은 안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힘차게 도약할 때"라며 "지금은 이러한 전통을 만들고 후학들에게 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소납이 수레의 손잡이를 끌고 나아가고자 하니, 종도의 힘찬 격려와 협조로 바퀴를 굴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성오 스님 "연륜과 경험으로 종단 발전"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연륜과 경험' 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캐치프라이즈 역시 '연륜과 경험을 살려 육부대중과 함께할 것입니다' 였다.

성오 스님은 "태고종은 종단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변화하지 못했고,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스님은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적시적소에 인재를 세우고, 각 인재들이 소신껏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태고종을 일류로 만들기 위한 대작불사의 총도감이 돼 종단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1번 상진 스님

"교육, 문화포교 변화를 이끌 것"



기호 2번 성오 스님

"종단 기구 개편으로 새 태고종 만들 것"

성오 스님은 종책 공약으로 △종헌 종법 개정과 종단기구 개편 △종단 교육기관의 시스템 개편 및 교육불사 추진 △종단 사찰 운영프로그램 개발 △사회연계망 확대와 봉사체제 수립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태고종 사찰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고, 종단이 지방교구 각 사찰과 함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알리겠다"면서 "종도들의 의견을 온 · 오프라인으로 공의를 수렴해 각 교구별 대중공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종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주교구에서 종단 교육에 대한 스님들의 열정을 기억한다, 소납이 당선되면 종단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바로 개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보 스님들 서로에 종책 공약 질의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종책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상진 스님은 성오 스님에게 "공약 내용은 많은데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성오 스님은 "종헌 종법을 개정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학교 불사는 장학금 모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종도 중 프로그램을 잘 아는 분을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연계 공약에 대해서 성오 스님은 "종도들이 쌀 한 가마니씩 기부하면 3200가마니가 된다. 종도들의 모연만으로도 태고종은 종단 차원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상진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서 40년 가까이 몸담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의 교육부 인가와 사이버 대학 인가는 종도들의 염원"이라며 "학교를 세우는 것은 학교법인 설립과 땅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사진 구성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종도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참가자 질의응답인 '포교와 화합' 에 대해 상진 스님은 "31개의 각 교구 종무원을 찾아가 각 종무원과 연합하여 큰 법회를 개최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겠다" 고 답했다. 성오 스님은 "우리 종단 프로그램을 현대화하여 직접 포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종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오는 4월 11일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진행되며, 4월 18일 최종 선거가 진행된다.

통도사 주지에 현덕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



불보사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에 현덕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현덕 스님은 자비나눔 기금 3000만 원, 승려복지 기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통도사는 불보종찰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이고, 종정예하와 많은 어른스님 그리고 대중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라며 "종정예하의 신임과 대중스님들의 인망이 두터운 스님이라고 들었다. 종정예하와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총림 운영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덕 스님은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큰 소임을 주셔서 송구할 따름이다. 총무원장스님 말씀대로 총림 화합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종단 행정과 복지 불사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중앙종회의원 "출가자 감소 구체적 대책을"

4월 3일 임시회 종책질의서 교육원 주문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 거론돼
교육원 "출가자 확대 정원 해결"
포교원엔 잼버리 대회 지원 촉구

'출가자 절벽 시대' 에 대한 종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사진〉에서 종무보고와 종책 질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는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종책적 대안과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종단적 지원책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교육원에 대한 서면 종책 질의를 통해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여성 출가자 감소 △출가상담제도의 체계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장에서도 출가 종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은 "2023년 상반기 행자 수료자가 39명이다. 이 인원만으로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선광 스님은 "교육원에서 출가자 목표를 200명으로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없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출가자를 양성해 사회의 모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종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제9대 교육원에서 제시된 출가자 확대를 기조로 종책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특히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우 스님은 "제9대 교육원의 기조는 출가자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는 출가자를 늘려서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통폐합 등의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에서는 그간 출가 관련 홍보가 미비했다고 본다. 방송과 언론 홍보를 준비 중"이라면서 "종단 연수 교육 중 법계교육에서 출가 진흥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향후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출가 진흥 정책에 교구본사와 중앙종회의원 등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종단 지원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2개국에서 14~18세 청소년 약 4만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종회의원 성행 스님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 4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대회로, 불교를 전법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라면서 포교원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은 "지난번 회기에도 잼버리대회의 종단 차원의 관련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면서 "그렇다면 종단 차원에서 지역 본사와 총무원이 대응할 TF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다음 6월 종회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책 질의에서는 사업단 차원의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세계잼버리대회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금산사 · 선운사 · 내소사와 함께 1만 4000명 규모의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용주사 주지 후보 성효 스님 선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 후보에 성효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강)는 4월 6일 경내 관음전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3일 열린 제393차 회의에서 용주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후보 자격 이상없음' 을 결정했다. 성효 스님은 "효행 근본 도량 용주사에는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는 가풍이 있다. 문중 화합을 우선으로 해 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분한 신고 공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여러분과 가람에 항상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종단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간 이내 분한 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내에 분한 신고를 못한 경우 사)대한불교 원융종의 승려와 종도의 자격이 정지 및 말소되어 대내외적으로 본 종단의 종도로서의 어떠한 업무 확인도 해드릴 수 없으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총무원의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 기 간 : 2023년 4월 1일~2023년 4월 30일 당일 접수분까지
■ 대 상 : 사)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및 승적보유자 (유승법사) 포함
*분담금 3년 이상 체납자 및 체탈도첩자. 제적자 제외
■ 접수 장소 :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 제출 서류 : 분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80-6호 / 02-853-0430-1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진호